■ 2013 상하이 모터쇼 가보니

기아차 K7·K9 첫 공개…中 시장 본격 공략

'올 뉴 카렌스'도 인기…현지 관계자들 몰려

광주産 금호 항공기 타이어 전시 관심 집중

기아자동차 오태현 해외영업본부장이 지난 20일 중국 상하이 신국제박람센터에서 열린 '2013 상하이 국제 모터쇼'에서 신차 'K7'및 'K9'의 공개를 앞두고 차량 설명을 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올 뉴 카렌스'와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타이어가 중국 시장을 공략했다.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는 각각 지난 20일 중국 상하이 신국제박람센터에서 시작된 '2013 상하이 국제 모터쇼에 참가해 대규모의 부스를 설치하고 차량과 타이어를 전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E4관에서 열린 기아차 설명회에서는 소남영 동풍열달기아(기아차 중국합작기업) 총경리가 'K7'(현지명 카덴자)과 'K9'을 중국에서 최초로 공개했으며 지난해보다 5만대 늘어난 52만대의 올해 중국현지생산 목표를 제시했다. 'K5'의 상해지역 판매호조에 힘입어 설명회에는 300여명이 넘는 현지 자동차 관계자가 모였다. 지난해 광저우모터쇼에서 사전 공개됐던 '올 뉴 카렌스'는 미니밴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에 따라 모터쇼를 찾은 관계자들의 관심을 다시 모으며 큰 인기를 누렸다.

기아차가 지난 2009년부터 2200억원을 투입해 만든 '올 뉴 카렌스'는 5월 말부터 중국에서 본격 판매된다.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올 뉴 카렌스'는 세단과 RV의 장점을 결합해 세련된 디자인과 여유로운 실내, 조용하면서도 안정된 주행성능 등 '모두가 원하는'(All You Like) 차량을 콘셉트로 개발됐다.

이외에도 기아차는 콘셉트카 'CUB'(캅, 개발명 KND-7)과 동풍열달기아 자주브랜드 '화치'(HORKI)의 콘셉트카, 쏘울 월드컵 에디션(2014 브라질 월드컵 랩핑차), 스포티지, 스포티지R, 포르테, K5 하이브리드, 레이 전기차 등 총 19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국내 유일의 항공기 타이어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F-16 군용 및 민용 항공기 타이어를 전시했다.

또 지난 200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성능 SUV 타이어 '엑스타 X3'와 곡성공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타이어 '에코윙' 제품도 모터쇼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엑스타, 로드벤처 라인의 신제품을 공개해 중국 시장 판매확대에 나섰다.

조장수 중국 마케팅물류 담당 상무는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세계 유명 자동차 및 타이어 기업들의 각축장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번 참가를 통해 금호타이어의 기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동시에 CTCC를 비롯한 모터스포츠 대회 후원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중국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하이=글·사진 임동률기자 exian@

■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 날

상담 인원 늘려도 수십명 대기

광주·전남 500명 몰려 북새통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되면서 첫날에만 광주전남지역에서 500여건 가까운 신청이 접수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여명이 신청해 흥행 조짐까지 보였다.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한 채무구조조정신청자는 오후 6시 기준 370명이었으며 광주시청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한 40여명을 포함하면 400건을 훌쩍 넘겼다. 목포 및 여수지소 신청건수를 포함하면 500여건에 가까울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사는 오전 9시부터 가접수가 시작되자 평소 접수창구 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지만 꾸준히 몰려오는 신청자 때문에 평균 대기인원이 20명에 달할 정도였다.

신청자들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20대 대학생부터 70대까지 전 연령대였으며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이 많았다고 캠코 관계자는 설명했다.

가접수는 30일까지 진행되며 본 접수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이번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고 나중에 추후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므로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의 99%(4104개)로 영세한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 대상이다. 행복기금 사전 신청자는 채무 감면비율을 10% 포인트 가량 우대하기로 해 행복기금이 채무를 일괄 매입해 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직접 신청하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채무 감면 비율은 30~50%로, 창구에서 직접 신청한 대상자는 채무 상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채무 감면 비율이 40%에서 시작한다. 일괄 매입 대상은 30%부터 적용된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동부대우전자 첫 작품은 '스마트 냉장고'

동부대우전자가 출범 이후 첫 신제품으로 대용량 스마트 냉장고를 출시했다.

22일 출시된 '클라쎄 큐브'(FR-L86MRSS)는 국내 최초로 최첨단 근거리 양방향 무선통신기술(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을 적용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원스톱 스마트 진단 및 원격 A/S와 온도 점검 및 절전관리, 모바일 서비스를 바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신개념 제품이다.

특히 '원스톱 스마트 진단 및 원격 A/S' 기능은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에 '클라쎄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냉장고 센서에 가져다 대면 별도의 조작 없이 무선 통신기능을 통해 제품의 이상 내역 등이 서비스센터로 바로 전송돼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외에도 클라쎄 큐브는 기존 양문형 냉장고와는 달리 왼쪽 냉동 공간과 함께 오른쪽 냉장 공간을 위아래 두 부분으로 나눈 3도어 구조로, 오른쪽 상단부는 독립 냉장공간으로, 하단부는 김치냉장고와 야채실을 내장한 '스페셜 큐브' 공간으로 분리했다. 용량은 830~860ℓ 이며 가격은 180만~250만원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동부대우전자가 22일 출범 뒤 첫 신제품으로 스마트냉장고 '클라쎄 큐브'를 출시했다. 〈동부대우전자 제공〉

지역 건설단체 전국 첫 '연합회' 창립

광주·전남지역의 12개 건설관련단체가 협력과 사회공헌을 목표로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를 창립했다. 지역건설단체가 모여 연합회를 꾸린 것은 광주·전남이 최초다.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는 22일 광주센트럴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에 박치영 대한건설협회광주시회장을, 부회장에 이상현 대한전문건설협회전남도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윤리경영과 사회공헌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건설산업환경에 공동 대응해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간 협력증진을 도모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회 회원은 대한건설협회광주시회, 전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광주시회, 전남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 대한설비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대한건축사협회광주시건축사회, 전남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광주시회, 전남도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광주·전남도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전남지회 등 12개 단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3월 어음부도율 0.23%

3월 중 광주·전남지역의 어음부도율이 전달과 같은 0.23%를 기록했다.

2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3월 중 어음부도율은 전달과 같은 0.23%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별로 광주지역(0.37%→0.32%)은 0.05%p 하락한 반면 전남지역(0.07%→0.13%)은 0.06%p 상승했다.

3월 부도금액은 59억 5000만원으로 전달(54억 1000만원)보다 5억 4000만원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5000만원)은 감소했고 서비스업(+7억3000만원)과 제조업(+6000만원)은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세관, 한-터키 FTA발효대비 설명회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오는 5월1일 발효 예정인 한-터키 FTA를 대비해 광주 및 전라지역 수출입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한-터키 FTA 발효대비 관세행정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對터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건설장비 등이며 이중 광주·전라지역의 대 터키 수출액은 2012년말 기준 5억6000만달러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와 전자부품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광주·전라 기업들에게는 관세인하 등 직접적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부터 인증부터 사전진단까지 아우르는 '기업별 맞춤형 Total 컨설팅'을 통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FTA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26.31 (+19.56)	547.10 (+5.64)	2.62% (+0.01)	1119.00원 (+2.70)